

# 우리 시대의 아물기 힘든 상처 '광주'

공개된 논쟁으로 부각... 관련서 속속 출간

80년대 폭력과 광기의 집단 무의식속에서 벌어졌던 '광주시민항쟁'. 동시대를 살았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채'로 남아있었던 '5월 광주'는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을 '내란을 일으키는 폭도'라고 규정했던 장본인들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그늘에 가리워 있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시작되면서 광주를 입에만 담아도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를 살아야 했던 시대를 지나 갇혔던 논리들이 15년만에 하나 둘 풀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출판계에서도 서서히 달아오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 '88년 광주청문회'를 계기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광주 항쟁 관련서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 진상규명의 차원 벗어나지 못해

가장 최근에 출간된 《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황석영 외, 풀빛)은 지난 85년 각종 자료와 증언들을 모아 출간되어 당시 정권에 의해 출판 자체를 금지당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전남사회운동협의회 엮음)를 바탕으로 씌어진 책이다.

이 책은 정당성이나 개념규정조차 안돼 있던 시대에 출간되어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촉매 역할을 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1부에 수록하고 있으며, 2부에는 항쟁의 참가자와 그 가족들이 15년만에 학술주범들을 검찰당국에 고발한 고소장 전문을 실고 있다. 3부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는 항쟁 10일간의 동향과 상황을 진압군과 시민군 관련 최근 자료들을 분석해서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총체적인 진상규명에 중점을 둔 이 책은 과거 '유언비어'로 매도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그려내면서 항쟁의 위업을 조명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5·18 특별취재반에 의해 출간된 《정사(正史)5·18》(상권, 사회평론)은 2년 6개월에 걸쳐 11명의 기자들이 발로 쓴 글들이다. 이 책은 피해자 중심의 서술체계를 극복, 은폐되었던 5·18전후 가해자들의 움직임까지 포함, 광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명에 나서고 있다.

'광주' 학살의 주범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등 '5월 광주'는 이제 공개된 장에서 새로운 역사인식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 나온 책들은 아직 진상규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피해자 중심의 서술체계를 극복하는 등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93년 5월 15일부터 "오늘날의 사초(史草)는 기자들이 쓴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백회를 연재하고 있는 이 기획은 그간 축적된 자료와 새롭게 발굴해낸 자료들을 민족사적 입장에서 재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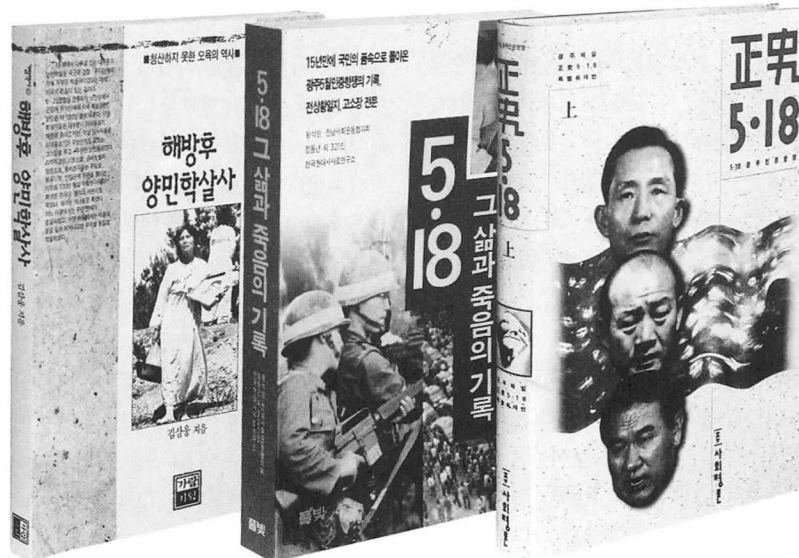
"향후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일차적인 사료라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시리즈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특별취재반의 말처럼 이 책은 시민군측 참여자 200여명을 비롯한 850여명의 직간접 5·18 관련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에서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증언과 사진자료도 특별취재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내용이다.

최근세사에 해당하는 5·18 관련 자료들이 국회의 청문회 속기록, 검찰의 조서, 피해자들의 증언, 가해자들의 각종 인터뷰와 회고록 등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아직 하권은 출간되지 않았지만 이들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 암흑의 땅에서 이젠 공개된 장으로

올초에 출간된 《해방후 양민학살사》(김삼웅, 가람기획)도 5·18학살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학살'이라는 사안에 중점을 두어 광주교도소학살, 송암동 양민학살, 주남마을 양민학살 등의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가 저지른 아물기 힘든



역사의 침묵 속에 가라앉았던 '5월광주'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상처인 '양민학살'을 "21세기를 앞두고 반드시 정리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관련서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갖은 박해를 무릅쓰고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1988년 광주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광주의 진상을 담은 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 출간된 책들은 5·18이 '정치적 문제'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출간된 것들이어서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90년을 전후해 출간된 책들은 《작전명령-화려한 휴가》(실천문화사, 1988), 《광주항쟁 비망록》(남풍, 1989), 《광주여 말하라》(실천문화, 1990), 《충정작전과 광주항쟁》(동광, 1989), 《광주보고서》(청음, 1988), 《저항과 명상》(빛고을, 1989), 《부마에서 광주까지》(샘물, 1990), 《10일간의 취

재수첩》(사계절, 1988) 등 현장에 있었던 시민, 취재기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쓴 증언록 성격의 책들이 많다.

《광주민중항쟁연구》(사계절), 《광주 5월 민중항쟁》(풀빛) 등 이론서들도 간혹 출간되었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출간된 책은 대부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학살의 주범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고, 당시 죽음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갔던 희생자들과 부상자 및 양민들은 역사적인 사면을 쟁취했다. 15년 동안 암흑의 땅에 갇혀 있었던 광주항쟁은 이제 공개된 장에서의 논리를 필요로 한다. 계급편향적인 증언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속에 역사의 한 과정을 객관화시키는 출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 허연 기자

## 본지 '서평·신간소개' 안내의 말

《출판저널》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온갖 종류의 책 가운데 출판의 의미가 있거나 소개 가치가 높은 책들을 선정, 서평·저자 인터뷰·대담·신간 읽기·신간 리뷰·출판화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을 통해 좋은 책을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출판사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판저널》 편집부